

해외 생산시설 설립으로 FTA 2배 활용!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Y사는 미국 자동차부품회사 E사의 아시아 지역 납품 총괄하고, 국내 생산기지 역할 수행 및 물류관리를 대행하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로 매년 생산량의 90%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
- 제품소개 : 자동차부품(HS 제8708.99호)



2. FTA 활용전 상황

- 생산제품의 90% 이상을 주문하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한-미 FTA발효 이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 쇄도
- 對미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자체 원산지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FTA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

3. 장애 요소

- FTA의 활용으로 바이어의 주문이 증가하여 매년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, 원유 값 상승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물류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이익의 증가폭이 크지 않음

4. 극복 방안

- 對미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1,500평 규모의 생산 기지 확충을 계획
 - 원부자재를 FTA를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미국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예정

5. 활용 효과

- **(수출 증가)** 한-미 FTA 발효 전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한 FTA활용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액이 100% 증가
- **(물류 거점)** Y사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보하여 현지의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및 생산량을 증가시켜 미주 지역 납품 총괄책임이자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

6. 시사점

- 對미 수출량 증가 및 캐나다, 멕시코의 신규 수요에 대비하고 NAFTA 등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를 연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장이전을 통한 생산설비 확대를 결정

